

## 2002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 해설

6월 월드컵과 12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여중생 사망사고로 인한 반미 시위 등으로 올 한 해는 어느 해 못지 않게 역동적인 해였다. 이러한 한 해 우리 도서관계도 여러 일들이 있었다. 본지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우선 10대 뉴스 선정 대상으로 21건의 항목을 정한 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참조하여 도서관 문화 편집실에서 최종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10대 뉴스 중 3가지가 학교도서관에 관한 것이었다. 올 한 해는 '학교도서관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이 함께 학교장 세미나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여전히 미흡하지만 사서교사 채용을 하는 교육청도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도서관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해 주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발전계획 발표로 사서교사 배치문제가 촉발되어 사서노조 결성 등 인력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학교도서관의 실질적 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출하였다. 우선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2011년까지 종합적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은 비록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해방 이후 처음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점에서 기대 또한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시작된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 또한 2차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 마련은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 해 10대 뉴스에 과천정보과학도서관 개관을 선정한 것은 특정한 도서관 개관 의미를 넘어 일반열람실, 즉 공부방 없이 공공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 때문이다.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독서실 기능을 배제하고 지식정보 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과천정보과학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그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비록 연내 도입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추진에 따라 도서관계도 올 한 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아직 뚜렷한 결론이나 행동지침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 변화는 결국 도서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올 한 해 사회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과 실천노력이 활발했다는 것에 도서관계 역시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MBC의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비판도 커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토론도 활발했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이러한 사회적 반향을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언론 등에서도 도서관과 독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도서관 현실의 개선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도서관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0대 뉴스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12월 초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수립하여 발표한 것

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외에 올 한 해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2003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108억원, 올해 대비 28.5% 증액한 일이나 광진정보도서관 부적격 인사 문제로 인한 논란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활발하게 모색되었으며, 진중도서관 건립 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도서관의 사회적 영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이나 독서와 관련해서는 학술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우수 학술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도서관에 보급한 일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된 일 등이 거론되었다. 그 외에 후보 그룹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국회도서관이 개관 50돌을 맞은 것과 인표 어린이도서관과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창설한 이인표 에스콰이어명예회장의 별세, 우리 협회의 이경구 신임사무총장 취임과 책읽는가족 캠페인 추진 등이 있었다.

모든 일들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뉴스 후보그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계기들이 어떻게 도서관 발전과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계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새해는 우리 도서관계에 더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 글/정리 : 기획부장 이용훈

10 대 뉴스

**정부(문화관광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발표**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 도서관이 독서실(공부방)의 허물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지식정보센터로 발전시켜 가기위해 ▲ 도서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정보를 서로 공유 ▲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콘텐츠를 확충 ▲ 공공도서관 인구6만 명당 1관 수준(800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 2,300여개의 전국 문고를 공공도서관 분관으로 연계 ▲ '밀레니엄 도서관 시범지구' 사업 등을 통한 미래형 모델 도서관 개발로 선진도서관서비스 제공 ▲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육성계획과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수립 발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범 부처 차원의 학교도서관 기획단(단장 : 교육인적자원부 고재방 차관보)이 구성되어 활동한 결과 8월 2일 2006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학교도서관 부문 활성화 뚜렷**

사서교사 배치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경상북도교육청 등 여러 교육청에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 하였으며, 경기도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등은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발표로 사서교사문제 논란 촉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대해 이 전문 인력 확보 없이 시설 투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서교사 문제가 전면적으로 불거졌다. 사서교사의 전면적 채용 대신 다른 방안들을 제시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의 사서교사들은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도서관 시설만 늘어날 뿐 전문적 관리가 없다면 학교도서관은 책 보관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직의 교사들도 사서교사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여러 지역의 학교도서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은 사서노조를 결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1단계 완료 및 2단계 사업 추진

문화관광부가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1단계가 완료되어 전국 144개 공공도서관에는 규모별 도서관리·멀티미디어·웹·보안용 서버가 설치되고,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과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이 보급돼 공공도서관간 자료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디지털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차 사업에 이어 나머지 250여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2단계 사업은 11월 말 주관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일반열람실 없이 개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반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인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이 5월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 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공부방 기능을 벗어나고 주민들의 지식과 정보제공 기관이자 문화기관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의 일반열람실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주5일 근무제 실시 예정에 따른 도서관계 논란 활발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이 임박해 짐에 따라 도서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주5일 근무제는 도서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 언론, 도서관 문제 깊은 관심 보여

KBS, YTN,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여러 차례 도서관 문제에 대한 보

도가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민간부문 독서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며, 서로 상응하여 우리 사회가 올 한 해 독서와 도서관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민간부문 독서운동 활발

문화일보와 출판단체 등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우리 협회 등이 후원하여 3월부터 '다시 책이다' 연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국민독서 토론회'와 책 선물 릴레이, 메트로 북메세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독서 붐 조성에 기여하였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2회, 안성기, 조수미) 포스터를 통해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4월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출판계, 도서관계와 함께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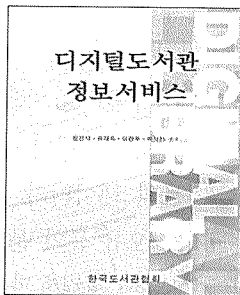
## !느낌표 현상

MBC가 2001년 말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느낌표의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가 우리 사회의 독서 붐을 크게 일으켰다. 선정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계와 문화계, 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적 독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들도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신 간

#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정진식, 유재욱, 이란주, 유사라 공저



크라운판/403쪽  
ISBN 89-7678-059-0  
정가 16,000원  
회원보급가 12,800원

### 목 차

- 정보서비스의 이해
- 정보질의와 응답과정
- 정보면담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라인 정보서비스
- 온라인 정보탐색과정
- 정보네트워크와 상호협력
- 정보길잡이 구축
- 이용자 교육
- 정보서비스 평가
- 웹 참고정보원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